

광주에 뜬 포켓몬... 금남로·중외공원 '핫 하네'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에 나타난 포켓몬고 몬스터 '별가사리'(왼쪽)와 금남로공원 앞에서 포켓몬고를 하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커플의 모습.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1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앞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서있던 손선미(여·20)씨는 남자 친구를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손씨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포켓몬고를 즐기고 있다”며 “게임과 데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매서운 추위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go)의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그동안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포켓몬고가 지난달 24일 정식 출시되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게임을 즐기기에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두터운 외투에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터치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상당수 있었다.
특히, 게임상에서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포켓볼’ 등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포켓스톱’과 플레이어 간 대

‘포켓몬고’ 정식 출시 후 연일 흥행 상무역·전남대 등 대거 출몰 사고 위험도...주의 필요

결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 곳에는 유독 많은 사람이 몰렸다. 도심에 설치된 조각 등 상징적이거나 특성 있는 시설물이 있는 특정지역은 ‘포켓스톱’과 ‘체육관’ 등으로 분류된다.
금남로 일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무시민공원, 상무역, 중외공원, 전남대, 조선대 등이 해당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몬스터 출현도 잦아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야외에서 즐기는 게 특징인 포켓몬고가 겨울에 출시되면서 인기몰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포켓몬고는 24일 출시 당일 290만이 이용하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698만명으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까지 더하면 7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켓몬고 출시를 중장년 세대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정모(55)씨는 “한 번도 산책을 가자고 말 한적 없던 딸이 포켓몬고를 하려고 먼저 산책을 가자고 하더라”며 “게임방식도 간단해 같이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운전 중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위험지역까지 무리하게 찾아간 이용자가 추락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외부활동이 필수적인 탓에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걷거나, 운전 중에도 몬스터가 출현하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I, 美 포커 고수 4명에 압승...20억원 따

인공지능(AI)이 미국에서 열린 포커 최고수 프로 4명과 겨루기에서 압승을 거뒀다. AI가 획득한 칩을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가네기 멜런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리브라투스’와 포커 프로 4명이 칩을 걸고 벌이는 포커게임이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피츠버그 카지노에서 열렸다.
경기는 AI가 칩을 걸고 각각의 프로들과 1대 1로 대결하는 ‘텍사스홀덤’ 포커로 총 12만 번 진행됐다. 각각 2장씩 받은 손

에 든 카드와 테이블 위에 놓인 공용카드 5장에서 강한 조합을 만들어 칩을 건다.
리브라투스는 20일간 4명의 프로 전원을 상대로 승리한 횟수가 많았다. 획득한 칩은 176만 달러(약 20억4000만 원)가 넘었다.
한번 할 때의 승패는 운에 좌우되지만, 게임을 거듭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 프로와의 실력 차가 드러났다.
개발자인 토머스 샌드홀름 교수에 따르면 리브라투스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게임 이론’을 응용했다.
작년 이세돌에 승리한 AI바둑 ‘알파고’가 스스로 프로의 수를 배워 강해지는 ‘심층학습’ 방법을 채용한 것과 달리, 슈퍼컴퓨터에서 미리 손에 들게 될 패의 조합을 분석해 가장 좋은 수를 골라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길 안내 앱 최다 검색어 호남지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설 연휴에 호남에서 카카오톡내비 사용자들이 길 안내 목적으로 가장 많이 등록·검색한 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지난 26~30일 카카오톡내비 길안내 검색(즐거찾기 포함)을 분석한 결과, 1위 ‘우리집’, 2위 ‘집’, 3위 ‘스타필드 하남’이었다. 4위 ‘인천공항’, 5위 ‘김포공항 국내선’, 6위 ‘서울역’이었다.
이어 ‘동서울터미널’, ‘현대아파트’, ‘회사’, ‘광명역’이 뒤를 이었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14위로, 광주·전남·북에서 유일하게 15위 안에 올랐다.
카카오톡내비 사용자들의 즐겨찾기에 우리집, 집, 회사가 등록돼 있어 이들 목적지가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가 같은 기간 즐겨찾기를 제외한 ‘순수검색’을 분석한 결과, ‘스타필드 하남’이 1위를 차지했다.
2·3위는 ‘이마트’와 ‘주유소’였고 ‘인천국제공항’(4위), ‘스타벅스’(5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6위), ‘홈플러스’(7위)가 뒤를 이었다.
‘서울역’(8위)과 ‘동서울종합터미널’(9위) ‘부산역’(10위)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수검색을 통한 상위 20위권 내에는 호남지역은 없었다. 카카오톡은 목적지의 각 검색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GIST, 절개 없는 뇌 질환 치료법 개발

두피에 전극 심어 전기자극 뇌 질환을 치료할 때 두개골을 열지 않고 전기자극을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이 개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전성찬 교수팀은 최근 새로운 뇌 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준(準)침습성(semi-invasive) 전기자극법’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준침습성 전기자극법’은 5mm 크기 티타늄 전극을 두피에 심어 전기자극을 주는 기법이다.
연구팀은 두피나 머리 근처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비침습적 뇌 자극’보다 준침습성 전기자극법이 10배 이상

한·미 연구진, 전력 없이 데이터 저장 기술 규명

한미 공동연구진이 전력소모가 전혀 없는 ‘무(無)전력’ 메모리를 가능케 하는 물리현상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우성훈 박사과 제프리 비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재료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외부 전력 없이도 ‘감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자성)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강자성체의 자구벽(자성 경계)끼리 충돌시키면 전자스핀의 배열이 흐트러지며 ‘스핀 파’ 파동이 생기는 것을 알아냈다. 또 이 스핀파가 다시 자구벽을 밀어 내 자성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확인했다. 즉 외부에서 전력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강자성체의 자성이 바뀌기 때문에 무전력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성훈 박사는 “스마트기기 하나로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메모리의 초저전력 문제는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제시한 방법은 향후 차세대 메모리 관련 산업 전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KIST 기관고유사업, 미국 C-SPIN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3년안에 승부 납니다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